

2025년 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확정

4대 전략·297개 세부사업 추진·563억 원 투입해 맞춤형 교육·직업훈련 지원 확대... 평생학습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협의회의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도의원, 평생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 추진기관인 전북자치도·교육청·시군·(재)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평생교육협의회의에서 이를 심의·확정한다.

이번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서 4대 전략으로 △같이 참여하고 누리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 △일상 속 평생학습 환경 조성 △자아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변화하는 평생학습 환경에 대한 적응력 제고가 설정됐고, 297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총 563억 원을 투입하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중심의 포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모두배움터 교육프로젝트 지원 △전북시민대학 지역캠퍼스 확대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여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6개 도시는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받아, 2026년까지 3년간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김제시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며, 그 역할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추진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대비 컨설팅 사업'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2025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도민 중심 새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평생학습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투어전북, TOUR JEONBUK’으로 명칭 변경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명칭을 '투어전북, TOUR JEONBUK'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문화관광 홈페이지'는 특별한 여행, 축제·관광정보, 여행가이드 등 5개 메뉴와 23개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23만여명이 방문하는 전북 관광의 대표 플랫폼이다. 전북의 다양한 관광지와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일 추천 여행지 및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특색 있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소개해 왔다.

이번 명칭 변경은 더욱 직관적이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투어전북, TOUR JEONBUK' 브랜드를 도입하여 해외 관광객에게도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통해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평생학습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화를 추진했다.

지난 3월 6일, 전북자치도는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사용자 중심 리뉴얼을 실시해 접근성이 낮았던 메뉴를 재편성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관광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여행 루트를 제시하는 '여행코스관'과, 전북 여행 상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여행 상품 홍보관'을 신설해 여행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찾아가는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청소·세면·식사 보조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중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14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청소, 세면, 식사 보조, 간단한 재활운동 등 일상 생활에 필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인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포함되며, 월 24시간에서 40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주소지의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기관 정보와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대상 정보시스템 실무자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공영장에서 도 및 시군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자치도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행정제도·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도에서 '납부증명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소속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아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 △세입관리 시스템 및 과태료·과징금 관리 시스템 사용법 △시연 및 실습을 통한 실무 적용 강화 △질의응답을 통한 시스템 운영 현안 및 개선 요구사항 수렴이 진행됐다.

김종필 도 차지행정국장은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행안부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도내 15개 마을 선정으로 국비 2억2500만원 확보... 제품 개발·홍보·판로 지원 추진 예정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도내 15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국비 2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주민 참여형 경제활동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도가 직면한 지방소멸, 고령화, 고용불안 등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마을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규 4개 △고도화 7개 △우수 3개 △모두애(愛) 1개 등 총 1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유형별로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정읍 '정읍정심마을관리'(떡·차 공

동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진안 '영농회사법인 도슈담다'(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케이터링) △'고원의숲생태교육협동조합'(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임실 '임실삼산오오청춘햇살'(유류공간을 활용한 카페·베이커리 운영) 등 4곳이 선정됐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전주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막걸리 술빵·수제차 판매 및 사회공헌 활동) △익산 '꿈마루협동조합'(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운영) △완주 '푸드인완주마더쿠기'(제과제빵 판매 및 체험활동) △남원 '농업회사법인 비촌양조'(양조장 운영 및 농산물 가공) △'야미'(발효음식 체험 및 교육) △임실 '임실레드팜영농조합법인'(토마토 원물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섬진강다슬기마을'(다슬기 가공품 생산) 등 7개 기업이 포함됐다.

우수 마을기업으로는 △전주 '꼭두'(공예·인형극·마당놀이 등 문화공연 기획) △장수 '장수신농'(장수 사

과 판매) △순창 '하미마을영농조합법인'(전통 한과·강정 제조 및 판매) 등 3곳이 선정됐다.

특히,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부안 '지산지공'은 김치·두부·절임배추 등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며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2억2,500만 원에 도·시군 예산을 추가 투입해 총 4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마을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홍보·판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미에 전북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마을기업이 내실있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공 고 -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종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회장 박철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